고용노동부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7.(토) 10:00

노동부 장관, 산업안전 대응 강화를 위한 **긴급 기관장 회의 개최**

- 노동부 감독·점검 후 개선 조치 여부 **불시 재점검** 지시, **동일 유형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** 감독은 **특별감독과 같은 강도**로 임할 것을 주문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11월 7일(토) 오전 10시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**장관 주재 긴급 기관장 회의**를 개최했다. 이번 회의는 안전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**구조적인 체질 변화**로 바뀔 수 있도록 **지방관서장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**과 함께 **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**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김영훈 장관은 점검·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**철저한 감독과 무관용 원칙의 엄중한 조치**를 강조했다. 특히, 점검·감독 이후에 법 위반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**불시에 재점검**할 것을 지시했다.

이에 따라, **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**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하며, **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독은 특별감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임해줄 것**을 당부했다.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**이익이 되는 구조**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.

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**올해 남은 기간** 사고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**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**, 토의했다.

김영훈 장관은 "**본부**는 정기국회에서 예산, 입법 등 **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**, **지방**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**감독에 역량을 집중**하는 등 제도가 **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**해야 한다"라고 하면서, "사고사망자 수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지휘자인 기관장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"라고 강조했다.

아울러, “**한달 후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(12.8)**되고, 73년 만에 우리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당부하면서 “장관인 저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	책임자	과 장	이경제 (044-202-8950)
		담당자	사무관	이호준 (044-202-8952)
			주무관	고준혁 (044-202-895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| **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말씀** *실제 발언과 다를 수 있음

□ 장관입니다.

□ 오늘 긴급 기관장회의에서는 현장의 산재 예방에 대한 기관장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, 더욱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.

□ 3분기 사고사망자 수(366명)가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

○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쓴 노동감독관들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

○ 대통령님께서도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셨습니다.

□ 하지만,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.

○ 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가 현장 노·사에 점차 확산되면서 일부 성과가 나타났지만,

○ 이러한 변화가 일터 전반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나가야 합니다.

○ 366명이라는 국민의 생명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점도 깊이 새겨야 합니다.

□ 또한, 한 달 후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됩니다. 우리 부의 역할이 73년만에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.

○ 본부·지방관서가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, 저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겠습니다.

□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고자, 지방관서장들께 몇 가지 당부합니다.

□ 먼저, 점검·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.

○ 점검·감독 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,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십시오.

○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,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불시에 재점검해 주기 바랍니다.

○ 조선업 관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대불 산단의 경우,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에도, 사고가 발생한 점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

○ 그 원인이 시설의 낙후 때문인지, 노사의 인식이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정성이 부족한 것인지 점검하기 바랍니다.

□ 둘째,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.

○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.

○ 그러나,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순위에 둔다면, 그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.

○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신 사안인 만큼,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독은 특별감독이라 생각하고 임해주길 바랍니다.

○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오히려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.

□ 셋째, 관할 지역의 경기 상황, 산업적 특성, 중대재해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예방 활동을 해주십시오.

- ㅇ 지방 정부, 민간 재해예방기관, 12월말까지 사업을 연장한 안전 지킴이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효과적인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.

- ㅇ 산재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.

□ 지금은 우리가 목표로 잡은 사고사망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선 시점입니다.

- ㅇ 전국의 사업장이 노동자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, 새롭게 바뀐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- ㅇ 지금까지의 사고사망자 수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변화로 만들어갑시다.

□ 본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,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

- ㅇ 지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□ 이를 위해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기관장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.

- ㅇ 국민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.

- ㅇ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.